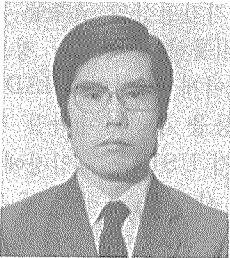


遞信事務의 電算化



宋 容 杓

遞信部 經營分析擔當官

미래를 향한
정보화사회의 실현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통하여
국가적차원에서 전산화를 목표로 지향,
체신부는 2,000년까지 ISDN의 완성,
정보이용의 대중화, 컴퓨터 共用,
사무자동화와 고도전산시스템을
구성·운용·배양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것이다.

1. 꿈같은 幸福한 社會의 實現

미래를 향한 인간의 꿈은 소위 情報化社會라는 야심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바야흐로 경쟁의 극을 치달리고 있다. 美·日을 선두주자로 하고 유럽세력이 이에 뒤떨어질세라 몸부림치고 있는 형국이 대체적인 경향이라 하겠다. 情報價値가 물질보다 우위인 사회가 情報化社會라고 한다면 물질의 생산과 획득은 안하고 情報만 먹고 산다는 것인지 혹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약간은 어리둥절할 때도 있고 특히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에 이르면 아주 일반적으로 추상론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의 절실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産業社會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늘어나는 人口와 資源의 고갈, 都市化 및 交通難의 加重, 産業公害의 深化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과 불안의 증대와 인간성의 상실은 幸福한 사회로의 도전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욕구충족은 문자 그대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社會構造를 고도화하여 幸福한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눈부신 電子技術의 혁신적 발전은 컴퓨터와 通信의 결합을 급속도로 진전시켜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래사회의 하부구조를 변혁해 나가는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ISDN 혹은 Télématique 등으로 대표되는 종합통신망의 꿈은 이제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서 점차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선두경쟁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情報化社會 실현노력은 대체로 세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체신사무의 자동화 계획은 87년까지 실용적 수준으로 될 것이다.

로는 소위 꿈의 통신망이라는 綜合 情報通信網을 2000년대까지 완성하고 그 이전까지라도 부분적인 Digital網을 조기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먼저 음성과 비음성을 막론하고 모든 통신방식과 컴퓨터 데이터를 연결되게 하는 교환망 및 전송망의 Digital化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작년 말로서 全國長距離 交換網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完全 Digital方式으로 구성·완료하였으며, 市内交換網은 90년 초반까지, 傳送網은 광통신과 PCM시설에 의하여 고품질의 廣帶域 Digital網으로서 90년 초반까지 각각 완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Digital通信網의 단계적 완성 이전에 있어서 특히 증대되는 컴퓨터 통신의 소요충족을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패킷 교환망을 비롯한 특정 통신회선의 高速 Digital化를 금년부터 선행 추진하고 있다.

둘째, 情報化社會의 기반구축과 함께 정보이용의 大衆化와 컴퓨터의 공동이용을 촉진시켜 나가는 일이다. 아무리 고도의 편리한 수단이라도 그 이용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며 더우기 특수계층에 편재되는 위험성조차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通信料金體制은 전국이 하나의 요금구조로서 단일화하여 거리격차가 零이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금년부터 장거리요금구간을 대폭 축소하고 실질적인 요금을 인하시키는 한편 시내요금은 현

실화시킴으로써 90년대를 향하여 단일요금 체제를 실현시키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를 개발하여 선보이게 될 것이며 ISDN이나 LAN의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셋째, 체신부가 직접 USER의 입장에서 事務自動化와 高度電算 시스템을 구성 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보 고도 이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분야이다.

84년말 통계로서 국내의 超大型 電算 System은 105대에 이르고 있으나 체신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규모의 전산조직은 각종 전자교환 시설에 들어가는 컴퓨터등을 포함하면 356대에 달하고 있어 실제 운용능력이나 경험 축적면에서도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체국 창구의 온라인 서비스망과 遞信事務의 自動化 計劃은 적어도 86-87년까지는 실용적 수준으로까지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정보 고도 이용능력 배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郵遞局 窓口의 On-Line化

체신부가 직접 User가 되는 電算 System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성격과 이용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우체국 창구의 On-Line화와 사무실내의 업무고도화나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OA라 불리는 체신사무의 自動化分野로서 초기에는 각각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부문활용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추진됨은 물론이다.

작년말로서 전국의 우체국은 2,275국에 이르고 있고 2,000년대까지는 6,000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우체국 창구의 On-Line화는 이러한 전국적인 분포망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종합봉사 창구로 육성하므로써 각종 민원처리 업무를 비롯하여 예금, 보험, 증권, Giro 등의 금융업무나 공과금납부 및 연금 지급사무, 각종 인허가 사무의 대행, 그리고 정보문화의 배분 등 우체국에만 가면 일상 편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체국 기능은 전국적인 분포를 갖는 것 외에도 서비스의 공평성과 보편성을 특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작업 체제에서도 매일 매일 決濟, 精算되거나 혹은 여하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연결되고 유통되도록 짜여져 있는 구조이므로 電算System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만큼 유리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특징이 컴퓨터와 잘 결합된다면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2월에 처음으로 24국을 구성한데 이어 현재까지 서울과 주요도시의 163국을 연결하여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의 On-Line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단계적인 확대 발전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인 86년까지는 군단위 이상의 우체국에 On-Line網을 완성하고 電子綜合預金, 遞信保險과 計算 管理機能을 綜合System으로 개발하여 電子通貨移替가 가능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CD, ATM 등 금융기관의 공동시스템과의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단계 (87-91년)에는 전국 우체국의 On-Line網을 전부 완성함과 동시에 중앙의 종합전산 센터를 건립하며, 금융기관의 상호결제 수단을 전산화하는 한편, 백화점의 판매관리 시스템과

의 연결을 추진하여 신용조회나 대금결제의 자동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과 Firm Banking 서비스도 부분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3 단계 (92-96년)에는 주요도시 우체국 창구의 無人化와 地域情報處理센터를 완성하여 우체국 창구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며 현금관리 서비스(CMS) 등의 펌 बैं킹 서비스확대와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으로 情報의 大衆化를 위한 기능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2,000년대 초까지는 綜合情報通信網을 이용한 고도의 종합적인 우체국 창구 서비스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85년부터 90년까지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므로 보급초기에는 연간 150억원, 88년 이후는 매년 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우체국 창구의 On-Line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금융터미널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문제인데 작년 중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2개 기종의 국산터미널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경쟁원리에 입각한 국산터미널 설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표 1 郵遞局 온라인 計劃

區分	期間	5次計劃	6次計劃	7次計劃	8次計劃
		'84-'86	'87-'91	'92-'96	'97-2001
온 라 인	郡邑地 郵遞局	全國郵遞局	全國郵遞局	全國郵遞局	全國郵遞局
郵遞局數	525局	2,840局	3,305局	3,680局	
온라인터미널數	735臺	4,260臺	5,619臺	7,360臺	
電算센터數	1個所 (서울)	3個所 (서울, 釜山, 光州)	5個所 (서울, 釜山, 光州, 大邱, 大田)	5個所 (左 同)	

3. 遞信事務의 自動化

우리 사회가 先進化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도 절실한 분야가 바로 事務自動化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리적인 설명은 제쳐두고라도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그다지 크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로서는 정보 홍수 속에서의 現代社會를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주변에서 事務自動化의 성공적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고 그런대로 착실히 진전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그러나 事務自動化的 성과가 좀처럼 실감되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의 事務形態나 資料의 共同利用體制 등이 너무나 한국적인 것이어서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한 데 비하여 그 실용성이 잘 잡히지 않게 되어 처음의 의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버리는 악순환이 초래되는 문제와, 개발초기와 같이 특정 부서에 의한 부분적인 추진이 시도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행이 없음에 따라 오히려 2 중의 복잡성을 가져오거나 전시용으로 끝나게 되어 이용자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즉 事務自動化的 성공에로의 길은 기자재나 소프트웨어 등 성능이나 기술수준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될 사람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체신사무 자동화의 중점적인 전략도 이러한 근본적인 체질을 가급적 자연스럽게 소화시켜서 체신사무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체신 OA는 체신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량 반복적인 업무나 資料處理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그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책임을 갖고 制度改善과 電算System을 개발하되 專門機關의 용역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범주로서 人事 및 財務管理 등 政府共通的인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 있고 電波管理, 郵便統計, 遞信金融 및 通信政策 情報管理 등 체신고유의 업무분야로 구분하여 개발책임과 협조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의 것들이 가장 협의적인 체신 OA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운용중에 있는 自動報告體制를 비롯하여 문서관리시스템, TEXT DB 구축, 체신통계의 공통 DB화, 개인용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OA용 통합 Package와 전자사서함, 폼 제너레이터 및 계산기능 등을 활용한 사무처리 시스템이 있다.

둘째, 개발초기부터 電算室 中心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User의 응용능력 배가에 초점을 두고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A시스템의 성격도 사무실내에서의 직접 처리하는 형태가 중심과제가 되므로서 Workstation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사용자별로 우선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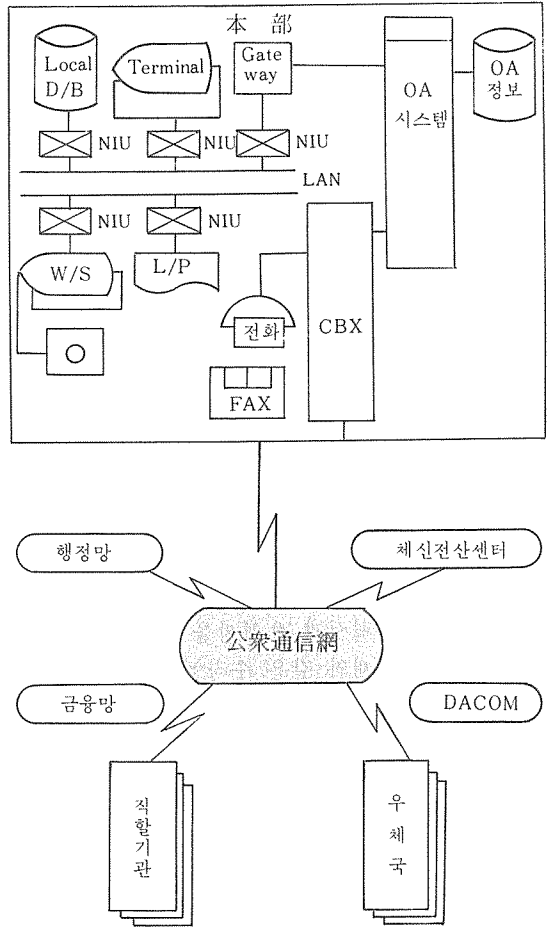


그림 1 遞信事務自動化 시스템

용하면서 점차 응용범위를 넓혀가도록 각종 경쟁방식에 도입하고 있다. User에 대한 기초훈련은 3-5일간의 실습교육을 위주로 하며 OA 기초이론과 ARS 및 PC조작술에 중점을 두어 금년에는 OA핵심요원 200명을 시발로 하여 3개년간 5,300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체신 OA는 특히 처음부터 통신기능을 갖도록 하여 사무처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초의 OA시스템으로 채택한 自動報告體制(ARS)도 통신기능을 갖도록 하여 長次官과 各室局長을 연결토록 한 것이며 금년에는 통신공사, S-

LOOC 등과 연결운용하는 동시에 지방직할기관까지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여기에다 PC를 연결하여 터미널기능과 인텔리젼트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OA용 PC를 금명간 개발완료하여 본부의 係單位 이상에 설치 보급하여 본격적인 담당업무의 컴퓨터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며 점차적인 연결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본부내의 종합통신망(L-AN) 구축을 금년부터 시도할 계획이다.

네째, OA의 실패사례는 대부분 성과가 불확실한 데 기인되는 것이므로 체신 OA에 있어서는 OA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분야를 먼저 시행하여 초기에 부딪치는 거부감을 해소코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부터는 본부내에서 수발되는 문서는 전자사서함(E-MAIL)에 의하도록 하고 기존의 문서수발 체제를 과감히 폐지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의 산하관서와 수발되는 정기보고와 주요

수시 보고사항을 E-MAIL이나 Facsimile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일체의 문서수발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위에서 소개한 몇가지 내용들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개선될 것이므로 자칫 싫증을 느끼거나 지루한 감을 갖지 않도록 최소한 86년까지는 부분활용이 가능한 수준을 실제 보여주도록 할 것이며 통합된 기능으로의 고도화시키는 작업도 88년까지 실현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방대한 체신 OA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가급적이면 우체국 창구의 On-Line網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객의 거래중심체제와 행정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분야에만 중점 투자토록 하면서 國家行政電算網이나 관련 情報産業에의 발전을 동시에 촉진해 나갈 것이다.

